

도-바른정당, 전북현안 해결 합심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비확보 지원 요청
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국제공항 건설 건의



29일 전북도와 바른정당은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현안사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운천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회단계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현재 기재부에서 9월 1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게 되면,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현안과 지역공약사업,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당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바른정당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바른정당 지역공약이면서 필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논의 했다.

새만금 SOC 구축사업(5,610억원)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

최를 위해서는 168개국 청소년 5만명의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본교통 SOC 조 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2억)은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빠른 시일내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비 반영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관련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건의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40억원)은 건축 된 지 35년 된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요하는 사업으

로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반영 요청했다.

또한 잼버리 행사장 기반시설 구축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로 행사개최를 위한 호안, 상수도, 하수도 보조간선도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행사 참가자 5만여명 중 4만여명이 해외참가자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필수이며 2022년 완공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나머지 행정절차 신속추진으로 공기단축(10년 → 6년)을 건의

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탄소소재법 개정안 발의로 조속히 국회 통과를 요청, 국립지리정보연구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전북안보단체협의회 간담회, 지역언론인 오찬간담회,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 현장, 직능별단체장 및 주요당직자 만찬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경제 견인차... 선도기업 육성 온 힘

최고경영자 혁신살롱 개최
신규 선정업체 지정서 수여
의식혁신·리더십 함양 강연

전북도는 29일 선도기업 최고경영자 및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최고경영자 혁신살롱'을 개최했다.

2017년 신규 선정 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의식혁신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카이스트 정구현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됐다.

수외의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주)대우전자부품 ▲(주)티앤지 ▲태산 ENG ▲해성씨앤씨(주) ▲(주)블스원신소재 ▲정우정공(주) ▲(주)시지트로

니스 ▲(주)대우에이피 ▲(주)원광전자로 9개 기업이다.

전북도 선도기업은 기술력이 탁월하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전북경제 발전 및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45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및 허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 5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애로 기술해결, 마케팅, 컨설팅, 구인활동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6.3%(전국 3.3%, 전북제조업 2.8%) 증가했고, 구인·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전년대

비 45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매출증가와 고용창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왔다.

또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결과 12개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중소기업 및 월드클래스300기업에 선정돼 중견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 정부에서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에코융합섬유연, 신생아 의류 벨트코기능 니트원단 개발 추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신생아 의류용품 제조 전문기업인 (유)금경과 2017년도 중소기업청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신생아 의류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부여하기 위한 벨트코 기능을 갖는 니트원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유아용품에 대한 인기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과의 디자인 또는 기능적 차별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벨트코 기능을 원단 개발은 환편원단 자체에 접착 기능이 구현되도록 편조조직 및 후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익산=장원원 기자

제값받는 농업 실현 총력전

도,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북도는 제값 받는 농업실현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잡곡 재배 생산 농가 지원에 나선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잡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급식 등으로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친환경 잡곡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잡곡의 공급기반을 확대하는 '친환경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정읍시, 고창군의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전주시, 남원시의 업체가 선정돼 2016 ~ 2017년 4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소량 다품목 위주의 취약한 잡곡 생산여건을 해소하고자 친환경잡곡 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 생산, 가공, 유통 등을 포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잡곡 계약재배 면적이 3ha이상(10호) 규모와 된 단지의 생산자 조직을 확보한 도내 농업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2018년 사업은 이번 달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사업에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 사업을 신청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친환경농업 지원업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친환경잡곡 수확 후 건조, 저장, 가공 등 일괄처리 가능하고, 법인설립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농업인 조직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되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친환경 흑미, 콩, 찹쌀, 수수, 기장, 귀리 등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친환경잡곡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 가공기, 포장기 등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농가교육, 유통, 마케팅 등 농가조직화를 지원한다.

2018년 사업은 이번 달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사업에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 사업을 신청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친환경농업 지원업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도민중심 규제개혁 추진 가속도

전 청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초청

전북도는 29일 도청 공연장(3층)에서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주대 행정학과 오재욱 교수를 초청해 '청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대응을 위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 생활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생명·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등을 소개하며 변화하는 행정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 창업, 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등이다. /김진성 기자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규제인식 전환 및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매년 규제개혁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2회)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1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 소상공인, 도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생생 규제개혁 건의과제 50건, 생활 속 규제개혁 건의과제도 도민 공모를 통해 196건을 발굴하여 부처 협의중에 있으며, 규제애로 현장방문, 국소실 민간규제개선추진단 건의 등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도민 생활불편 규제 등 수요자 중심에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신성장분야,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엽 법무행정과장은 "급변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한수(1955. 2. 26.생 2005. 5. 15.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장인혜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년단833 상속한정승인 판사 장인혜
▶ 피상속인: 망 김한수(1955. 2. 26.생 2005. 5. 15.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2-4
▶ 공고인: 김한영
▶ 한정승인수리일: 2017. 7. 26.
▶ 공고기간: 2017. 8. 29. ~ 2017. 10. 28.
▶ 연락처: (청구인 김한영의 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덕천로 56-11 010-8626-136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시름아있네!

원광대학교

창업선도대학 | 1학과 1기업 1특허 프로그램
아시아 중심대학 | 아시아 중저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획득
경쟁력 있는 대학 | 정부 재정지원 사업 1,110억 수주(전국 상위권)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7. 9. 11(월) ~ 9. 15(금) ☎063-850-5262~4(입학관리과)

프라이머 사업 대학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교육부 | 지원대학 특성화 사업(CX-1) 교육부 | 사회융합형 대학(신학협업 선도대학(LINC+) 우수기업형) 교육부 | 가정형 창업 선도대학 ISO 26000 이행수준 최고등급 획득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